



12면

국립전주박물관, 주요 업무계획 발표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 (063)288-9700

저탄소 그린 농생명도시 브랜드 선점

전북자치도, 농식품부
농업진흥원과 협약 체결
저탄소 농업 관심 농가
GAP 인증 추가 지원
농업경쟁력 강화 등 전개



22일 전북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확대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사진 가운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안호근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업부문에 비료, 에너지 덜쓰기 등 선진 저탄소 농업기술을 도입해 그린 농생명도시 브랜드를 선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자치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안호근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3개 기관이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확대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특·광역시장 최초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에서는 협약 주요 내용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저탄소 농업분야 사업 추진 상황 및 비전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저탄소 농산물 인증취득 희망 농가 발굴, 인증신청 지원, 저탄소 사업발굴 및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극 도입·보급하게 된다.

농업부문 저탄소 기술은 비료, 농기계, 냉난방에너지 덜 쓰기, 비닐 멀칭, 논 메탄 저감 기술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18개 세부사항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도적·행정적

지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저탄소 농산물 인증 절차에 따라 인증심사 심의를 지원, 저탄소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공동으로 저탄소 농산물 소비 확대 홍보 및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 대상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농생명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적 진흥을 전담하는 준정부기관으로 저탄소 농산물 인증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기관이다.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은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비료·농약·에너지 절감 등으로 저탄소 농산물 생산에 동참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저탄소 농업이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는 농작물 생산과 공업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는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확대와

모델을 발굴해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안전하고 만족하는 지속 가능한 농생명 산업 수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은 2023년 농산물은 889호, 1,222ha로 전국 면적 1만338ha의 12%로 전국 시도 중 3번째를 차지하는 등 매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이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김재훈 기자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 네트워크 확장 ‘가속도’

전북자치도,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과 ‘맞춤’
특화단지 유치 등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 지속 협력

전북특별자치도가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 및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첨단재생의료분야 네트워크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자치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조인호 단장,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이은미 원장,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련사진 3면)

지난 20일 재생의료진흥재단과의 협약에 이어 오늘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과의 협약 체결로 첨단재생의료분야 기반을 탄탄히 다지게 되면서 향후 전북 바이오 산업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은 지난 2021년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재생의료분야 연구개발 기반 조성,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을 목표로 설립된 기관이며, 총 사업이 약 6,000억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인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추진을 전담하고 있다.

또한, 조인호 단장은 지난 2023년 12월 제1차 새로운 전북 포럼에 강사로 나서 ‘첨단재생의료기술 동향과 산업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 바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소재·장비 인프라 공유 및 협력 △글로벌 선도 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기획 및 협력사업 추진 △국책사업 및 공동 R&D 과제발굴 및 추진 △바이오 특화단지 활성화 공동사업 발굴 및 연계협력 추진 등을 담고 있어 앞으로 전북자치도 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첨단재생의료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전북자치도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내 협업을 넘어 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협력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지원자 978명

전북자치도교육청, 원서접수 결과... 6개 권역 시험장 확대

전북자치도는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 기업 유치와 투자기업 지원, 초격차 기술 확보 등 다방면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지속성장이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타 지자체와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다.

한편 협의체는 4개 자치단체를 순회하며 이번 전주에서 개최된 이후에 타 지자체 지역에서 매분기 개최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이차전지 활성화 협력 강화... ‘초광역 연계 협의체’ 발족

전북자치도 등 4개 지자체·테크노파크 참여... 특화단지 중심 공급망 안정화 방안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산업부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4개 지자체(전북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테크노파크(TP)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초광역 연계 이차전지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

초광역 연계 이차전지 협의체는 특화단지로 지정된 4개 지자체 중심의

이차전지 공급망 안정화·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중앙부처-지자체-관계기관 간 정보교류 및 연계를 통한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발족했다.

이날 발족식은 4개 지역 테크노파크 간 초광역 연계 협력 협약식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IET)의 ‘이차전지 산업 동향 및 연구개발 방향,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국가첨단 특화단

지 육성정책’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의를 통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협력체 구성 및 공동기획 △이차전지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특화단지 육성 협력 △거점기능, 기술개발, 원소재 공급망 등 기업지원 기능 연계 △전주기 생태계 조성 지원 등 이차전지 특화단지 핵심 및 육성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상호 협력



전주매일 캠페인